

대행 스님



# 왜 자신들의 등불이 밝다는 거를 못 믿고 그렇게 컴컴하게만 생각하십니까

… 퍼뜩퍼뜩 자기가 작용하는 데서 그 물리가 터져야 하니까요.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게 전부야. 전부 자기 마음으로써 작용하는 데에, 그 속에 다 있다니까, 일체 만법이.

그리고 애들한테도 가르치면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식이라는 게 영원하다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게 있으면 항상 인의롭게 부드럽게, 말할 때는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은 거기에 다 맡겨 놓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뿌리를 길러 주는 것이 사랑이지, 그냥 겉으로 말하고 야단치고 온통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가출하게 만들고 이탈하게 만들고, 몸뚱이는 안 나가도 마음이 벌써 바깥으로 나가게 만들고 이러면 부모의 자격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잘못해 놓고 정신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더욱더 가난을 가져오게 만들고, 병고를 가져오게 만들고….

사사로운 조그마한 말이지마는, 어디 가다 보면 커피를 마시고도 잔을 저런 데다가 그냥, 조금만 가면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하기 싫어서 어느 귀퉁이에다 끼워 놓고, 차 타고 가다가도 담배 피다가 그냥 후컥 후컥 버리고, 다 마시고 깡통을 그냥 휙 던지고 가고 그러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마음공부라는 것이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아야 하고 도의와 의리, 시간을 지키고, 부드러워야 하고 부드러운 행을 해야 하고, 말 앞세우는 것보다도 행동이 더 진실해야 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익이고 거짓말이 아닌 거고, 사기성의 마음을 가지고 만날 남을 이익하게 안 하고 해롭게 한다면 자기 앞에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난 어떤 때는 이상스러운 점이, 테레비에 나올 때 보면 골골이 그냥 쓰레기를 버려서…, 아, 사람이 돼 가지고 그거 자기가 먹고 난 쓰레기 담아 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으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나?

그러니 그 오물 속에서 독충이 얼마나 일어나겠느냐고. 그 독충이 일어나면 보이지 않게 안개처럼 날아다닌다고.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로 오느냐. 버린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도로 온다고. 그러면 버린 사람만 그렇게 되느냐. 버리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받는 거지.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백 사람, 천 사람이 죽게 돼 있어. 고통을 받게 돼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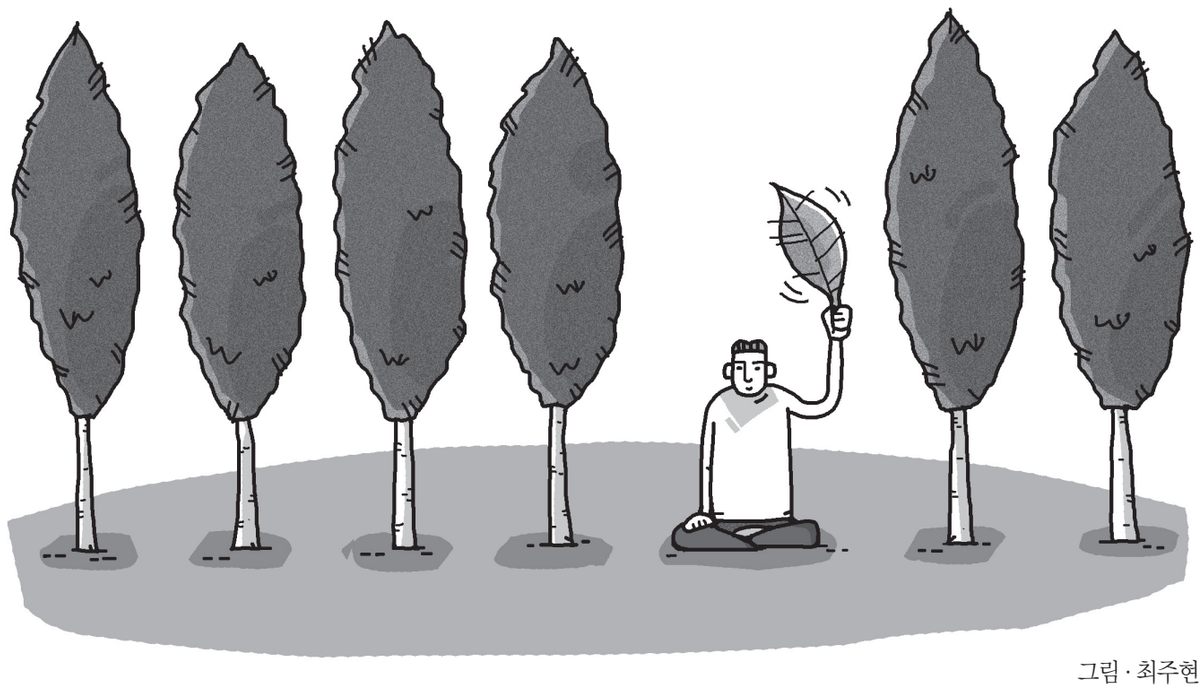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만약에 열 사람이 그렇게 버리고, 아니 세 사람만 그렇게 버리고 그랬다면 백 사람, 즉 말하자면 백을 채운다고. 97명은 어떻게 되지? 글쎄, 그러니까 거기 세 명을 포함해서 백 사람이 병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

우리가 이런 공부를 튼튼하게 하질 못한 관계상 그런 행도 하고 저런 행도 하는 거죠. 또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세균이 모두 그게 독충인데 나한테 달려들면 내가 그것을 아나? 털구멍을 통하고 귓구멍 눈구멍 콧구멍 입으로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병이 들리고, 요새 얼마나 병이 많으냐고. 그럭하는 사람이 좀 더 줄고 그럭하는 사람이 없어야만이 우리 병이 덜 들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 놓는다면 나무에는 어떻고. 나무에도 곤충들이 생겨 가지고는 그냥 전부 뿌리가 상하게 되고, 우리 사람 하나 잘못해 가지고 얼마나 해가 가는지 몰라요. 그뿐인가. 식물 심어 놓으면 독충이 그냥 전부 달려들어서 먹는 것도, 그것도 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지. 그러니 한 번 잘못에, 예를 들어 말하자면 거짓말을 한 번 해 놓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열 번을 거짓말을 해야 한다. 그러면 열 번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자꾸자꾸 번지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아주 거짓말로다가 그냥 왕창 싸 버리고 말지. 조그마한 거짓말 하나에 그렇게 왕창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걸 버려도 독충이 생겨서 우리 국민을 전부 그냥 나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날아다니면서 그냥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기 때문에 세계를 덮치는 거야. 그게 조그마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모두 하면서, 테레비에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물통 속에 그냥그냥, 아이구 참! 세상에, 사람들의 머리로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응? 누구라도 서둘러서, 아무리 저거 해도 석 달에 한 번씩은 치워야, 일 년에 세 번은 치워야 돼. 아무리 못 치워도. 아무리 깨끗한 물이 들어가도 앙금이며 수도 파이프에서 나오는 쇳물이며 그런 게 들어가면 모두 나쁘다는데 뭐, 엉망이더군.

그러니 이 공부를 했다면 사람들의 머리 쓰는 것이 좀 더 그걸 느껴. 물을 먹을 때도 물을 따르면 벌써 '이 물 느낌이 좀 안됐다' 하면 그런 거를 건의해서 부시게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다 이익하게 가져와요. 이 마음공부라는 게 모두 자녀들과 더불어 위로는 부모 조상들, 아래로는 자녀들 또 나아가서는 친구들, 형제들, 부부지간의 문제들을 다 가져올 때 다 커버할 수 있는 둘이 아닌 도리를 안다면 그때에 가서는 모두 전체, 외부의 전부가 둘이 아닌 줄 알게 돼서 여러분이 모든 물리가 다 터지게 되고, 들으면 듣는 대로 그게 법이 되고, 보면 보는 대로 법이 되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법이 돼요, 한데 떨어지지 않고.

그런데 모두 전화 오는 걸 봐도 그렇고, 글쎄, 어린애 못 낳는 거를 스님한테 가서 참, 근근덕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생겼는데 건강하답니다. 그런데 의사가요, 태반에 무슨 물이 적어서 뭐가 잘못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 그것이 그냥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잔다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여기 와서 공부를 하지 말지, 그러려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고 긁어서 걱정 근심을 하고. 세상에 돈이 없고 그래도 진정으로 찾아들 데가 여기야, 음? 돈이 있다고만, 권세가 있다고만 여기 오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거든.

우리 스님네들은 돈 많이 준다고 좋아하지 않아. 그걸 알아야 돼. 돈 많이 주는 것도 돈 있는 사람, 또는 전자에 복은 지었으나 인과응보로 많은 죄를 지었다거나 이런다면 그것은 시주도 해야 하고 정성도 지극하게 해야지. 그건 자신이 살아나가다 보면 자신에 의해서 '아, 이런 거는 이렇게 됐으니까 그 값어치를 하고 나는 그거보다 무주상 보시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 하는 거야, 있으면. 없는 거를 굳이 빚을 내서 가져오라는 말은 안 하잖아? 빚을 내지 않아도, 당장 먹을 거를 가져와도 가슴이 아픈데…. 그런 게 불교가 아니라니까.

그래 저분이 저기 앉아 있지만 그 동생 남편도 병이 들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했지. 병이 나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가상하지. 자기의 그 공부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고칠 수 있었으니 말이야. 여기 뭐, 줄창 오는 사람도 아니고 시골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도 다 인권해서 고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살아나가는 데도 또 자신이 그걸 알고 그렇게 나가면 가정이 그렇게 유하잖아. 나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거기서 더 나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이익하면 이익했지, 자식들한테라도.

여러분에게 이익하라고 공부시키는데 어떤 때 엉뚱하게 그렇게 나올 때는….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지. 그 말을 하거나 그렇게 못하거나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나? 하지만 내가 잘 입고 잘 먹고 부자가 되고 돈 벌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 같으면 아픈 그 눈물이 안 나와. 사랑하니까, 내 아픔과 같이 생각하고 내 몸과 같이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이 멍청아! 왜 이렇게,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해?" 하고선 큰소리도 나오지, 사랑 안 한다면, 내 몸과 같이 생각 안 한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그래야 돼? 그럭하고 살아야 되느냐고, 목 아프게. 바깥으로 믿지 말고 안으로 하나하나 믿음으로써, 나를 끌고 다니는 나의 주인공이 바로 나를 위해서 유(有)의 법이나 무(無)의 법으로 모든 걸 조절하고 나간다고 그렇게 해도 그것을 믿지 않고 그런다면 난들 어떡하느냐 이거야. (중략)

내려올 때는 한마디 할 게 없었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앉으면 또 말이 되고 말이 되고 이러거든요. 하, 참 내!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 그러니 여러분이, 날마다 얘기해 드리는 거지만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 그거부터 제도하기 위해서, 또 살아 있는 내 몸뚱이와 내 가정을

☞ A30면으로 계속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일체제불의 자비와 사랑은 일체중생의 자비와 사랑이다.
-대행선사 법어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선원

사부대중일동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 043-877-5000
FAX. 043-877-2900

